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현악기가 소리를 내려면

울림통과 현의 조합이 있어야 하듯이

현상은 행위와 조건이 결합될 때 일어난다

현악기는 아주 좋은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줄들은 이 악기에 알맞은 소리가 나도록 조율되지요. 만약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악기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행복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다면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들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행위의 복합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현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려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행복을 성취하려면 꾸준한 다르마 수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숙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분다면 즐거움과 고통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고통은 상대적인 속제의 수준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아주 냉혹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마치 음악이 화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요.

수행도 마찬가지이지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역경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자국들을 넘어선 부술 수 없는 지복으로 이어집니다. 선택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실수나 모호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교광장, 총무원장 추대 5대 기준 결의

5일 추대위 첫 회의서... 중단화합·원력 등 덕목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 추대를 위해 최대 정책 모임인 불교광장은 8월 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총무원장 추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추대위원으로 선임된 불교광장 대표와 운영위원회, 감사를 비롯해 20개 교구본사주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수좌회, 선원, 율원, 강원 대표자, 연대를 선언한 前 무차회, 비구니회와 前 보림회 대표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대위원들은 이번 총무원장 후보 추대의 5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5대 기준으로는 △중단화합 △원력 △리더십 △수행 및 교육, 포교 △공심과 쇄신 의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수행이 구축하고 행해 개 원만해 종단의 원용화합을 이뤄낼 인물 △사부대중의 뜻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후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통해

각 정책모임·교구본사·직능 등

54명 참여... 확대 가능성도

9월 7일까지 후보 추대 회의

별도 조직 구성해 후보 검증

추대위원 자성 선언·서약도

미래지향적인 종단 운영을 이뤄낼 인물 △ 불교 대중화와 국제적 역량을 강화시킬 인물 △새로운 불교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후보 △친소관계 배제, 공

평무사한 인사제도 정착과 폭넓은 인재 등용을 이뤄낼 후보 △도덕성과 청정성을 갖춘 후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배척하고 공심에 입각해 종단을 이끌 후보 등의 기준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추대위원회는 9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회의를 갖고 후보 추대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 추천 절차 및 방식도 정해졌다. 추대위원 3-5명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법계 대덕 이상 종도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으로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복수 후보 추천은 불가하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 추대위 9인 위원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종현 중범 등에 걸쳐 사유가 없는지도 검증할 방침이다.

불교광장 대변인 적문 스님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름 교구본사 스님들의 참여를 열어 놓고 있어 추대위 인원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인물을 총무

원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대위원들은 후보 추대 과정에 대한 비밀 엄수,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며, 불교광장은 어떠한 이권에도 청탁·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정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교 광장은 5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선거 악행을 솔선해 막고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대덕, 종진스님들의 이러한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일체의 중무직을 비롯해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공심의 자세로 정책과 인물로서 차기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자세로 종도로부터 배우고 정책을 구하겠다"며 "종도들이 보내준 합리적인 의견을 발전시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은 8월 5일 구인사에서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천태불자들 하안거 정진 들어가다

천태종 8월 5일 구인사에서 결제식... 9월 4일까지 주경야선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여름 한 달간 안거에 들어갔다. 천태종은 8월 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종정 도용 스님, 원로위원장 운덕 스님, 총무원장 도정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위원장 준광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안거에 든 재가불자들은 이날부터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천태종 사찰

서 한 달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을 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해제식은 9월 4일 오후 10시 구인사에서 열린다.

결제식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 달 동안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불총림 방장에 지선스님 추대키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고불총림 방장에 지선 스님을 추천하기로 했다.

고불총림 배양사는 8월 2일 임회를 열고 방장에 대해 고사의 뜻을 밝힌 광제 스

님의 추천안을 철회하고 지선 스님을 새로운 방장후보자로 추천키로 결의했다.

임회는 지선스님 방장 추천안을 산중총회를 통해 결정해 오는 11월 열리는 중앙총회 정기대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임회위원들은 운문암에서 안거중인 지선스님을 찾아 뵈고 방장직을 수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종일 기자

동화사 방장 진제 스님 추대 법회 열린다

19일 승좌 법회, 대불마당서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초대 방장으로 추대하는 승좌 법회를 오는 8월 19일 대불마당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원로 의장 밀운 스님, 원로위원 지성, 성우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각 정당 대표,

김병일 대구광역시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동화사는 이날 승좌 법회를 위해 전승이 끊어졌던 종사 이운식을 복원했으며, 이를 식전 행사로 재현할 계획이다.

동화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팔공산을 더욱 새롭고 활기찬 수행정진의 선풍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법등 스님 원장 선거 불출마 선언

前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사진)은 8월 9일 서울 연화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스님은 "처음부터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고 주변에도 밝혔다"며 "내 한계를 알기에 총무원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이끌어주고 밀어준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래 전부터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불출협에 '적반하장' 해명

불교출판문화협회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주관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진흥원은 "종교분야에 접수된 불교 학술서의 대다수가 우수도서 선정의 결정

사유에 해당되는 도서들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심사위원 위촉에 대해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계파나 다종교 각각의 전공별 심사위원 위촉은 불가해 한국종교문화연구소와 한국종교학회에서 추천한 2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진흥원은 "종교분야에 접수된 불교 학술서의 대다수가 우수도서 선정의 결정" 노덕현 기자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드리는 호소문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불법문중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삼가 예경합니다.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힐링년버벌 템스를 기획 제작하여 공연한 부명스님이 불교신문에 게재한 호소문 광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혼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천만 불자들이 한마음씩 보태어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템스의 성공적 공연을 위한 후원을 발원하며 이 광고를 냅니다.

본인은 불자로서 부명스님이 기획 제작한 힐링년버벌 템스공연을 3차례 관람하였습니다.

부명스님의 호소문 내용처럼 대중언론과 방송에서는 호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브로드웨이나 유명 뮤지컬과는 분명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원력으로 처음부터 성공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출연자들의 열성적인 타악공연은 가히 일품이다. 이것은 온전히 제작부터 연출 감독 등 1인 5역을 맡아 온 몸으로 불사르고 있는 부명스님과 출연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얼마나 많은 젊은 불자들이 불교에 매료되고, 그 불교를 음악으로, 공연으로 전하려 몸부림쳤던가. 그리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과 한탄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일까. 그 지나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족히 알고 있기에, 많은 아쉬움이 눈에 띄어도 불구하고 종단 지하 공연장에서 올려 퍼

저지고 있는 힐링 년버벌 타악공연 템스가 남달리 느껴진다."

위의 글은 대한불교조계종 전 문화 부장이셨던 효탄스님께서 불교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만 불교도 여러분! 템스가 불교적 한류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산사음악회나 지방공연을 유지하고 1만원, 10만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여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템스의 부명스님 돕기를 발원해줍니다.

부명스님의 발원처럼 불교가 20년, 30년의 미래를 지향 한다면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시중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부명스님께서는 부루나 존자의 원력처럼 템스가 일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고 대한민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작품으로써 불교적 한류 트렌드를 만들어 내어 문화포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문중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해안과 대 자비심으로 템스를 비롯한 불교문화로 시절인연을 만들어 불국정토가 이루어질 발원 드리며 적극적으로 함께 후원 동참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910601-01-347509 (예금주 : 사단법인 이렇고)
- 부명스님 전화 010-8743-9711, 070-8827-0108

2557년 8월 7 일

불자 해명화 손모듬